

보도시점 (지 면) 5.27.(월) 조간
(인터넷) 5.26.(일) 12:00

소상공인 매장에 「똑똑한 관리자(매니저)」를 지원합니다.

- 단골고객, 재고, 매출 관리 등을 도와 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희망 소상공인 대상... 1,000여개 상점 시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디지털 전환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외부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매출분석, 재고관리, 고객 예약 관리 등의 기업간(B2B)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매출분석, 재고관리, 수발주/물류관리, 고객예약관리 등을 전용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시중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사용료(구독료)를 1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 관련 정보(매출액, 재고, 수발주 등)를 손쉽게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장운영 비용 절감 및 고객관리(예약, 포인트 적립, 할인쿠폰 발행 등)를 통한 홍보(마케팅)와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분부별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을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보급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

하여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일반상점에 확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의 동네상점을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지능형(SMART) 상점’으로 전환시킬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7일(월)부터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디지털소상공인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870)
		담당자	사무관	이진영 (044-204-7875)
			사무관	김영환 (044-204-787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